

9 SEPTEMBER 九月



Conversation: Universality In Art And 'East Asia' 대화: 예술의 보편성과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예술의 보편성 / 알랭 바디우
식민주의는 우리의 오늘이다 / 세실 빈터 진행: 서용순
오후 7시 /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8층)

PARTICULARITY OF CULTURE AND UNIVERSALITY OF ART / Alain Badiou
COLONIALISM IS TODAY / Cécile Winter Facilitator: Seo Yong Soon
7 pm / Seoul City Hall (8F)

10 OCTOBER 十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는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주제와 구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리비엔날레는 석학의 강연, 자유로운 주제 토론,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비엔날레 소문내기, 작은 전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일련의 사전 행사를 통해서,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아시아’의 상상, 파국과 자본주의, 정치적 열정, 사회적 미디어 등의 비엔날레 키워드에 다가갑니다. www.mediacityseoul.kr은 온라인상에서 이 전 과정을 매개하고 풍부하게 합니다.

프로그램 01 대화: 예술의 보편성과 ‘동아시아’

프리비엔날레의 첫 번째 행사로, 국내외 학자, 평론가, 작가를 모시고 예술의 지역적 실천이 어떻게 세계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지, 또는 지닐 수 없는지 논의합니다.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알랭 바디우는 우리에게 예술의 보편성과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그의 입장과 더불어, 예술적 진리가 위협당하고 있는 오늘날 예술에 주어진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실 빈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식민주의와 그 결과에 대해 논합니다. 바디우의 이론을 국내에 꾸준히 소개해온 서용순이 이해를 돕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술은 지역성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인종과 인종 사이의 경계를 넘겠다는 것은 모든 국제비엔날레에서 쓰이는 상투어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이러한 논의가 적절한 실천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현실에 우선 주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컨대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예술의 보편성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오리엔탈리즘의 경계란 어디일까? 증대하는 보수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맞서는 지혜는 무엇일까? 새로운 미디어환경은 ‘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시아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왕후이는 아시아의 제국과 지역에 관해 논하면서, 동아시아 내부의 관계와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문학평론가 황호덕이 함께합니다.

근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식민문화를 연구해온 황호덕, 일본 현대미술의 이슈를 꿰뚫고 있는 박소현, 최근 ‘여성국극’을 주제로 작업해온 정은영은 일본문화와 한국문화의 착종과 영향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 박찬경이 진행합니다.

www.mediacityseoul.kr

프리비엔날레

1

동아시아 제국/식민의 정치문화_중국을 중심으로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
발표자: 왕후이 (순차 통역)
진행: 황호덕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2

문학의 특수성과 예술의 보편성 / 식민주의는 우리의 오늘이다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발표자: 알랭 바디우, 세실 빈터 (순차 통역)
진행: 서용순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8층)

3

동아시아 브리콜라주-일본을 중심으로

10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발표자: 정은영, 황호덕, 박소현
진행: 박찬경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회의실 (1층)

▶ 주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 sema.seoul.go.kr
서울특별시청: 서울 중구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립미술관 협력: 경희대학교

▶ 문의 : 미디어시티서울 2014
T. 02-2124-8979 / F. 02-2124-8977
E. info.mediacityseoul@gmail.com

미디어시티서울 2014 웹사이트
www.mediacityseoul.kr >
프로그램 01 대화 >
참여신청

01

프리비엔날레

4

왕후이 汪晖 Wang Hui 칭화대(清華大) 교수. 잡지 ‘두슈(讀書)’ 주간을 맡으며 1990년대 중국의 지식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 그는 개혁개방의 부정적 요소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전통적 사회주의와 다른 관점을 제시해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제국과 지역,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트랜스시스템 사회’를 주창한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아는 세계다』(2010),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전4권, 2004), 『죽은 불 다시 살아나』(2000) 등이 있다.

5

황호덕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문학평론가로 1999년 《문학사상》에 문학 평론을, 2001년 《KINO》에 영화 평론을 발표하며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고석규비평문학상, 한국비교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인문학의 정치성을 재탈환하기 위한 연속 기획 ‘WHAT’S UP 총서’를 기획 편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벌레와 제국』(2011), 『프랑켄 마르크스- 한국 현대비평의 성좌들』(2008),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타자, 교통, 번역, 에크리튀르』(2005)이 있다.

6

알랭 바디우 Alain Badiou 현대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철학자로, 신플라톤주의의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여 신자유주의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당 없는 정치’를 주창하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철학을 위한 선언』(1989), 『비미학』(1998), 『사도 바울』(1998), 『세계의 논리들- 존재와 사건2』(2006), 『사랑 예찬』(2011) 등의 철학서와 다양한 정치 팸플릿 및 시론을 발표했으며, 여러 편의 소설과 희곡도 썼다.

7

세실 빈터 Cécile Winter 세실 빈터는 '프랑스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자 연합(UCFml)'의 일원이었고, 아프리카에서 의사 생활을 하며 식민주의와 에이즈에 맞서 싸웠다. 많은 팸플릿을 출간하였고, 알랭 바디우와 함께 『정황들 3』을 집필하였다. 빈터가 기고한 논문으로는 「신 아리안족의 주인공표, 유대인의 이름을 발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

8

서용순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몇 년간 바디우의 철학을 꾸준히 소개해 왔고, 존재론과 정치철학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옮긴 책으로는 『베케트에 대하여』(2013), 『철학을 위한 선언』(2010)이 있고, 「바디우 철학에서의 존재, 진리, 주체: 『존재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술의 모더니티와 바디우의 비미학적 사유」 등 다수 논문을 집필했다.

4

박소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이다. 국경에 의해 구획될 수 없는 미술의 역사를 다양한 미술제도와 담론의 차원에서 탐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戰場としての美術館』(2012), 『아시아 이벤트』(공저, 2013), 『추상미술 읽기』(공저, 2012),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공저, 2009) 등이 있다.

5

정은영 정은영은 이름 모를 개개인들의 들끓는 열망이 어떻게 세계의 사건들과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저항이 되거나 역사가 되고, 정치가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대표작으로는 다년간 여성국극 배우 공동체를 추적하는 "여성국극 프로젝트" (2008-현재), 동두천 미군부대 지역 여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동두천 프로젝트"(2007-2009)가 있다. "시연"(2010)을 포함한 세 번의 개인전과 "페스티벌 봄"(2013),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2013) 등의 공연, 전시회에 참여했다.

▶ 프리비엔날레 다음 프로그램

프로그램 02 워크숍: 파국, 이상사회, 아시아 고딕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파국, 이상사회, 그리고 '정치적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특히 아시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열정의 위험성, 열정의 필요성, 정치적 무관심의 심화 사이에서 예술은 어떤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작가의 '퍼포먼스-강연'을 중심으로, 작가의 주제를 둘러싼 전문가의 토론이 함께 이루어집니다.(2013년 11월 예정 / 배영환, 노재운 외 평론가, 큐레이터, 학자)

프로그램 03 전시: 프리비엔날레 허브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프리비엔날레 전시로, 일시적인 행사를 통해서는 전달되기 어려운 다양한 내용을 전시합니다. 관련 주제의 작품 전시, 아카이브는 물론, 비디오와 영화상영, 즉흥적인 대화와 토론이 있습니다.(2013년 10월 29일-12월 22일)

프로그램 04 엽서

작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와 인용문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엽서를 제작 배포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소문처럼 떠도는 이미지와 문구는, 현대의 미디어 환경에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지문, 시그니처를 남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치 소문뿐인 범죄현장의 흔적을 찾아가듯이, 미디어시티서울과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통로입니다.(2013년 9-12월 / 김실비, 김영글, 박창현 외 작가)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MEDIACITY SEOUL 2014: PRE-BIENNALE 01